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

MRTC 통계브리프 | No. 2024-05

국내 외국국적 학생과 유학생(D-2) 규모 추이 (2014~2023)

현채민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최서리 이민데이터센터장
이창원 정책연구실장

2023년 교육부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선발 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유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통계브리프는 국내 유학생 관련 통계를 이해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학생 관련 통계는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공표하고 있는데, 두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 유학생(D-2)의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중 외국국적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교육부 통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시기별, 학위과정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체류자격별 외국국적 학생 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통계분석 대상 및 내용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1980년 약 1,440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약 73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30년에는 500만 명대, 2040년대는 400만 명대로 떨어지며 2072년에는 200만 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의 인구감소와 대학의 학생 충원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의 유학생 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유학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 혹은 조사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학생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이를 활용한 가공통계 역시 제한적이다. 유학생을 포함한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국적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 통계자료로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과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가 있다.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는 등록외국인[1]을 지역별로 체류자격, 국적, 연령별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체류자격을 세부약호 수준까지 제공하여 각 학위과정별 유학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하다.[2]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는 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의 통계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재적학생[3] 통계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포함된다. 다만 수료 상태인 경우는 제외된다.

두 행정통계의 유학생 수치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두 행정통계의 대상과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은 등록외국인 대상으로 체류자격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D-2)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을 집계하고, 이를 통해서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는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국적자를 집계한다. 즉, 유학(D-2) 자격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에 재적 중이더라도 외국국적자면 모두 집계된다. 집계 기준일에도 차이가 있다.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은 매년 분기별(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기준)로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글의 분석에서는 법무부와 교육부 통계의 기준일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 중 각 연도 3월 31일 기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 교육부와 법무부 통계 비교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교육기본통계
제공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육부
조사대상	등록외국인	재적학생 (재학생+휴학생)
기준시점	분기별(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매년 4월 1일

자료: 저자 작성

본고에서는 두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 간의 유학생과 외국국적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4] 여기에서는 유학(D-2) 자격으로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법무부 통계)을 '유학생'으로 칭하고, 이와 구분하여 유학(D-2) 자격과 상관없이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교육부 통계)은 '외국국적 학생'으로 명칭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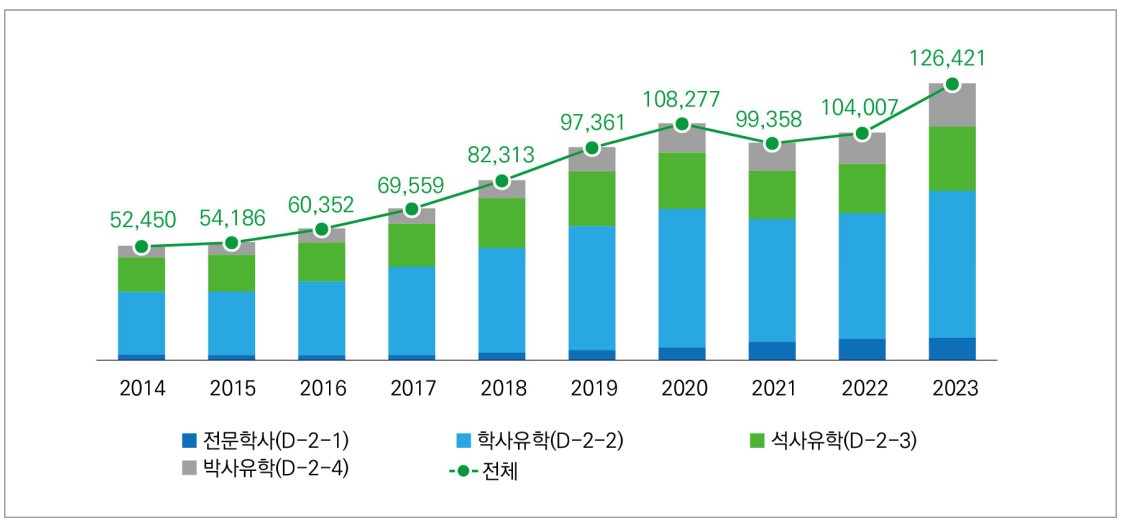
1)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4)
2) 유학(D-2) 체류자격은 다시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의 세부 체류자격으로 구분된다.
3) 재적학생수는 재학생, 유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2019년부터 추가)을 포함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4).
4)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2회(6월 말, 9월 말 기준) 통계가 제공되었으며 2013년에는 3회(6월 말, 9월 말, 12월 말 기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회(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기준) 통계가 제공된다. 따라서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3월 말 기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은 2014년부터 활용할 수 있다.

유학생(D-2)과 외국국적 학생 규모 추이 (2014~2023)

우선 법무부 통계의 유학생(D-2)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유학생의 규모는 2020년 10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곧 회복하여 2023년에는 12만 6,421명으로 2014년(52,450명)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문학사(D-2-1)와 학사유학(D-2-2)은 2018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사유학(D-2-3)과 박사유학(D-2-4)은 2023년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별 비율을 살펴보면 학사유학(D-2-2)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전문학사(D-2-1)의 순이다.

〈그림 1〉 학위과정별 유학생(D-2) 추이 (2014~202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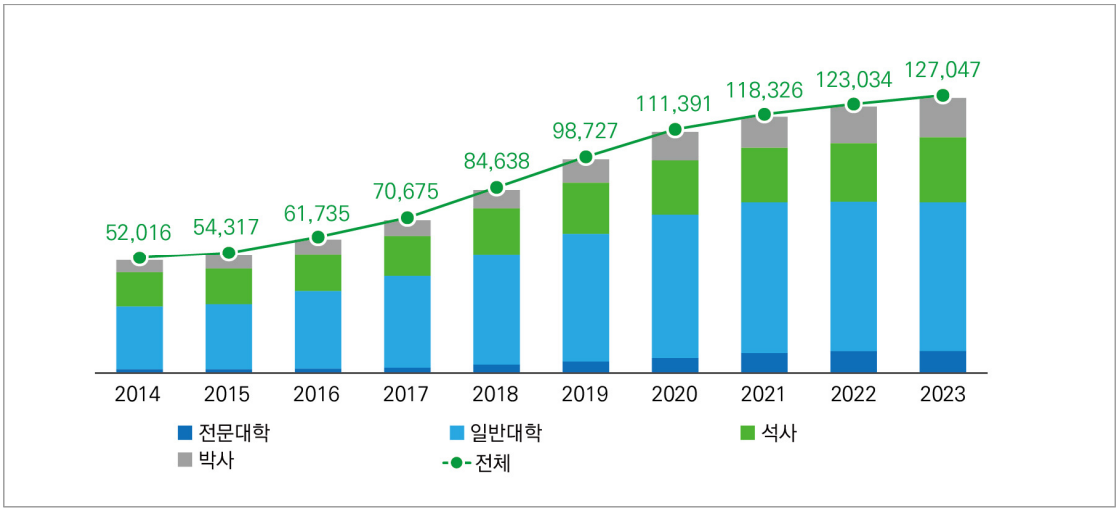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각 연도
주 1. 매년 3월 말 기준
2. 전체 = 전문학사(D-2-1) + 학사유학(D-2-2) + 석사유학(D-2-3) + 박사유학(D-2-4)

교육부의「교육기본통계」를 통해서도 2014년부터 학위과정에 등록한 외국국적 학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그림 2〉 참조). 증가 추이는 법무부 통계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그림 1〉과는 달리 코로나19 기간에도 증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유학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유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였지만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 학생의 학위과정 등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체류 중이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많은 외국국적 학생들이 등록 이후에 본국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던 현상도 일부 반영된 것

으로 추측된다.[5] 학위과정별 전년대비 외국국적 학생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일반대학, 석사과정은 2018년에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박사과정은 2019년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학위과정별 외국국적 학생 추이 (2014~202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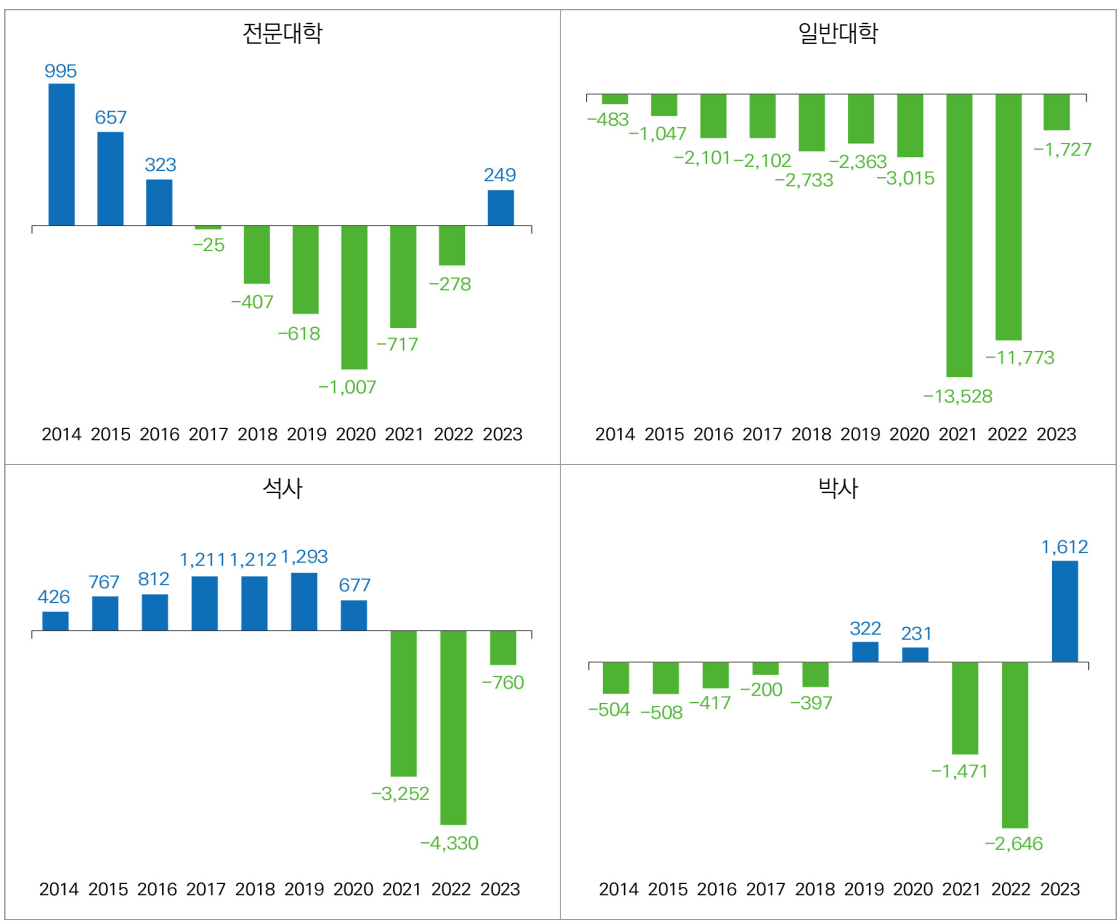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주 1. 매년 4월 1일 기준
2. 전체 =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석사 + 박사
3. 석·박사 통합과정은 미포함
4.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대학과정(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포함)에 등록한 외국국적 학생은 미포함

〈그림 3〉은 각 학위과정별로 법무부 유학생(D-2)과 교육부 외국국적 학생 통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준일자를 최대한 맞추었음에도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통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외국국적 학생 통계는 유학 자격을 갖지 않아도 외국국적이면 모두 집계된 결과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유학생(D-2) 통계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법무부의 통계가 일부 기간, 일부 학위과정에서 교육부의 통계보다 높음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1년 이후를 제외하고 법무부의 유학생(D-2) 통계가 교육부의 외국국적 학생 통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박사과정은 2014년~2018년 교육부의 통계가 법무부의 유학생(D-2) 통계보다 더 크다. 이 차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육부 통계가 재적 여부를 가지고 집계하는데 비해 법무부 통계는 체류자격 소지 여부로 집계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부의 통계는 재적 상태가 끝이

5) 연합뉴스. "코로나 유입 막는다…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자국서 원격수강" (2020.07.29.)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48900530, 검색일: 2024.04.03)

나면 통계에서 바로 제외되지만, 유학생(D-2)의 경우 졸업을 한 시점에서 체류자격이 자동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유학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6] 그러므로 2월에 졸업을 하는 경우 4월 1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교육부 통계에서는 제외되지만, 3월 31일 기준 법무부 통계에서는 여전히 유학생(D-2)으로 집계될 수 있다. 한편, 박사과정에서 교육부 통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석사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다시 국내 박사과정에 들어간 외국국적자가 상당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물론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추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 학위과정별 유학생(D-2)과 외국국적 학위과정생의 규모 차이 (2014~2023)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각 연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주 1. 매년 3월 말 기준(법무부), 매년 4월 1일 기준(교육부)
2. 수치는 법무부 유학생(D-2) 수에서 교육부 외국국적 학생 수를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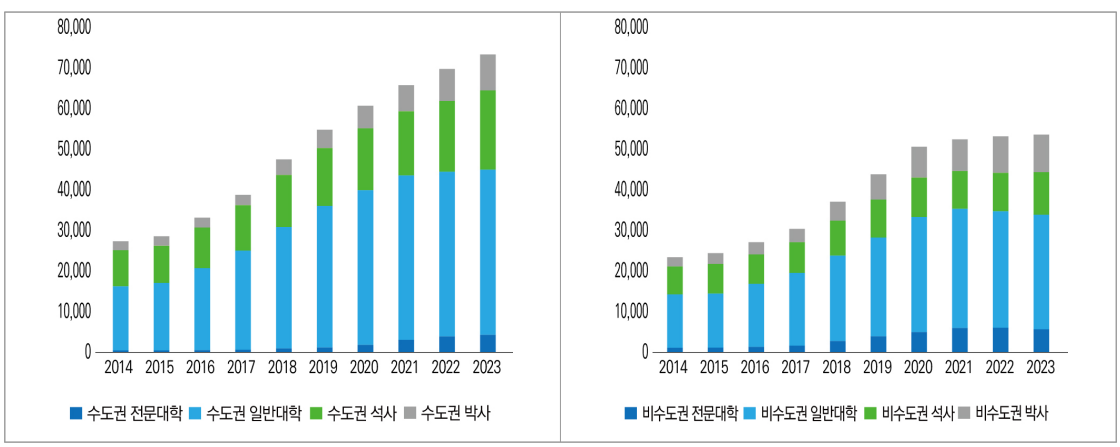
6) 법무부 관계자에게 서면(이메일)을 통해 내용확인 (2024.05.21.)

수도권 vs. 비수도권 외국국적 학생 추이 (2000~2023)

〈그림 5〉는 교육부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외국국적 학생의 지역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은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일반대학(학사), 석사는 수도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비수도권 외국국적 학생의 비율이 70%를 넘었으나, 2021년 이후로 60%대로 떨어지면서 수도권 외국국적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에 등록한 외국국적 학생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에 등록한 외국국적 학생의 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5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 기간 동안 일반대학(학사)과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의 수도권 비율이 약간 높지만, 박사과정은 비수도권 비율이 약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전공 계열에 따른 외국국적 학생 수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석사과정의 경우 공학·자연 계열의 학생 비율이 10~20% 대로 나타났으나 박사과정의 경우 25~50% 대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이공계열 대학원의 외국국적 학생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7] 이미 계열과 상관없이 대학원 과정도 내국인 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8] 비수도권 지역의 이공계열 대학원은 외국국적 학생을 통해 연구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 외국국적 학생의 지역별 추이 (2014~202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주: 매년 4월 1일 기준

7) 강원일보. "지방대 "외국인 대학원생 모십니다." (2007.10.30.) (https://www.kwnews.co.kr/page/view/2007102900000000098, 검색일: 2024.05.25.).
8) 한국대학신문. "[창간35주년 특집/학문 후속세대 진단] 외국인 석·박사 비율 15년 만에 4배 늘어…국내 학문생태계가 위험하다" (2023.10.23.)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4019, 검색일: 2024.05.25.).

〈그림 5〉 외국국적 학생 지역별(수도권 vs. 비수도권) 분포 (2014~2023)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주: 매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위과정생 중 외국인 비중 (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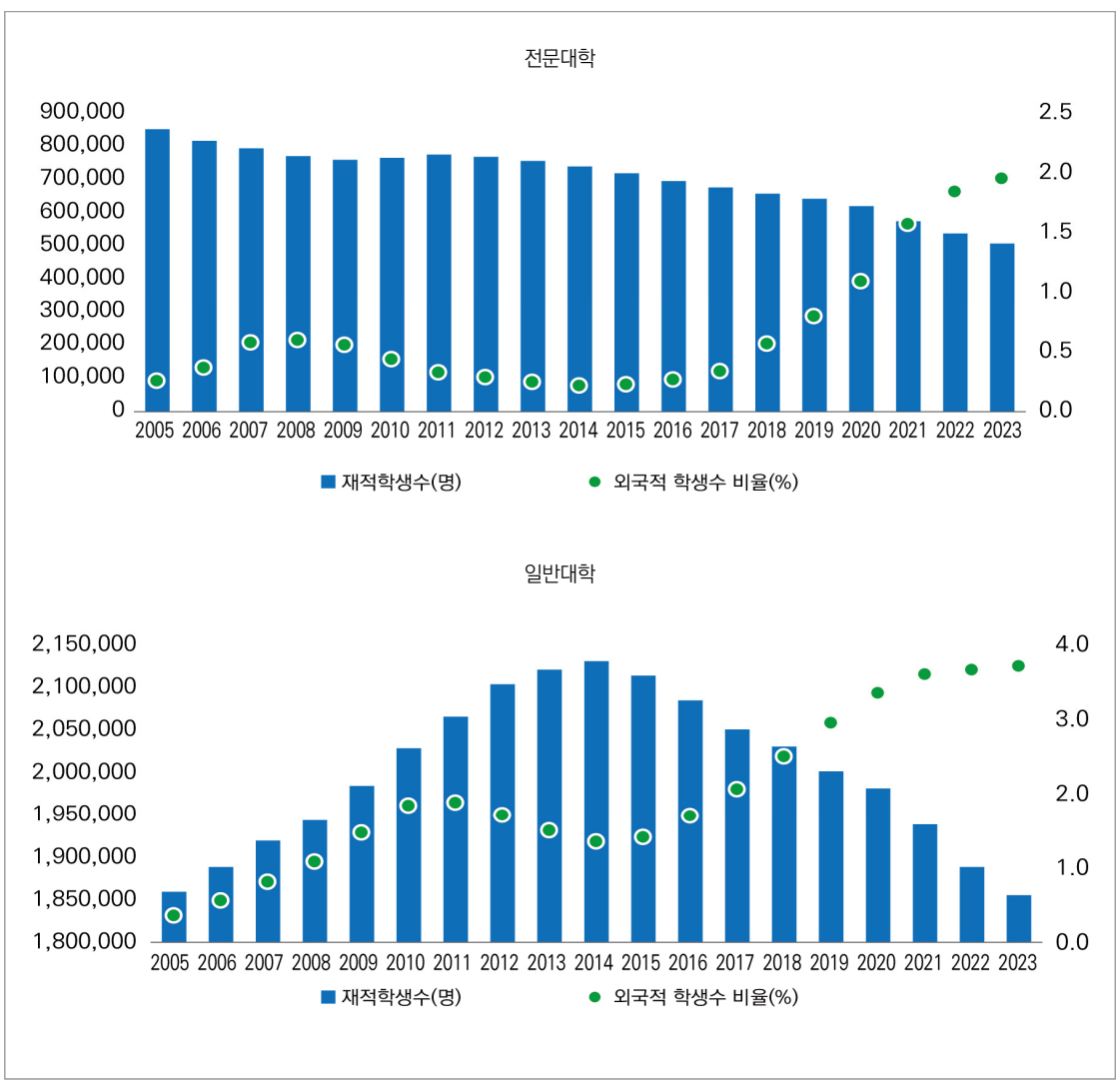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학사)의 경우 재적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재적학생 중 외국국적 학생 수의 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학생 중 외국인 비율은 2005년 0.3%에서 2009년 0.6%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0.2%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0.8%, 2023년에는 2.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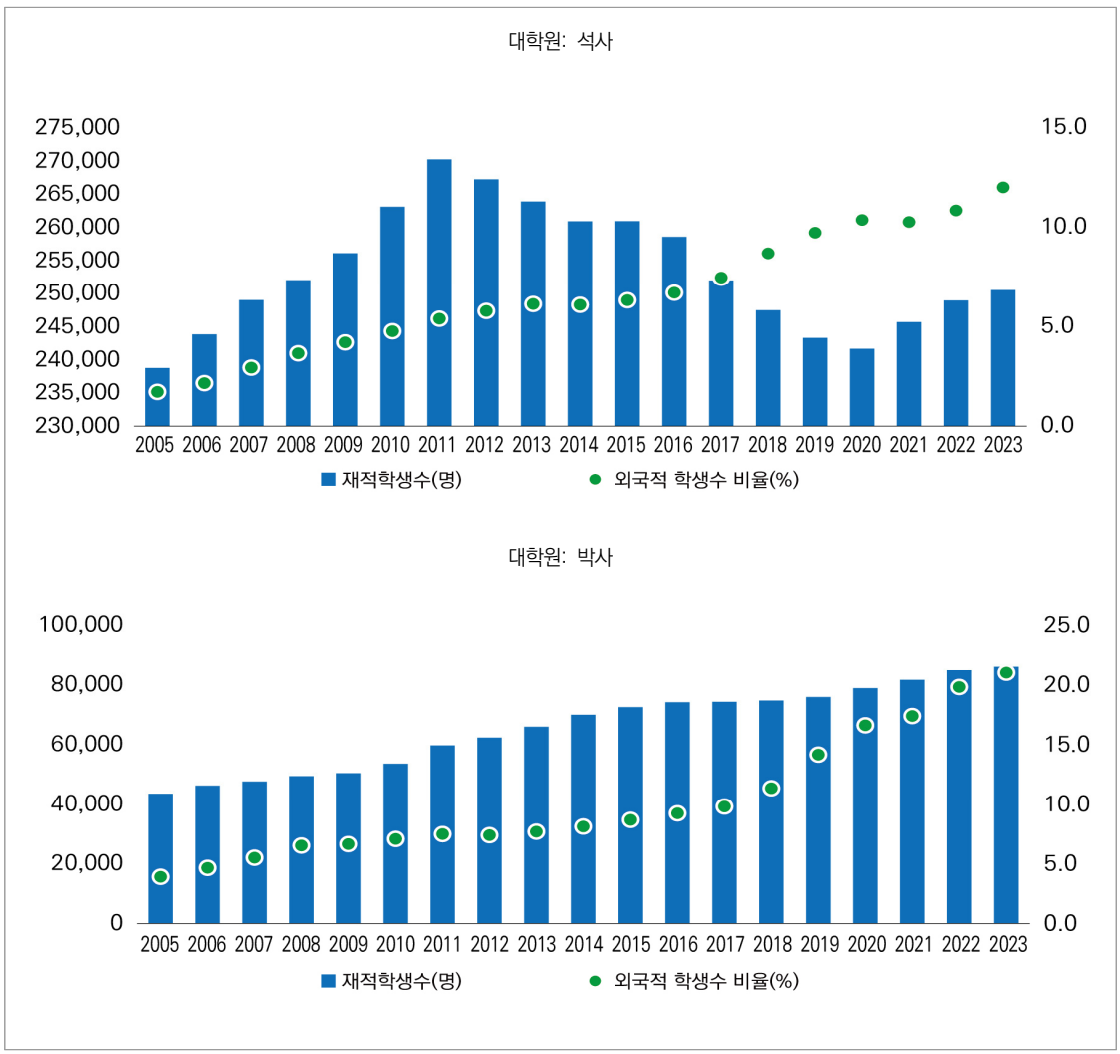
국적 학생 비율은 2005년 0.4%이었다가, 2009년 1.5%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4%로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여 2019년 3.0%, 2023년에는 3.8%를 기록하였다.

대학원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 수의 비율이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외국국적 학생 수의 비율은 평균 0.7%, 일반대학은 평균 2.0%였다면 석사의 경우 평균 6.6%, 박사는 평균 10.2%로 확인되었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 비율은 2005년에는 1.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2.0%가 되었다. 박사과정의 외국국적 학생 비율은 2005년 4.0%에서, 2015년에는 8.8%, 2023년에는 21.1%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림 6〉 학위과정별 재적학생 규모와 외국국적 학생 비율 (2005~2023)

단위: 명,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각 연도
주: 매년 4월 1일 기준

국내 외국국적 학생과 유학(D-2) 자격자 통계분석의 정책적 함의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규모와 지역별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두 행정통계에서 보여주는 외국국적 학생과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둘째, 교육부의 통계를 통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가 비수도권 학교보다 외국국적 학생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비율은 학위과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대학과

박사과정은 비수도권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부 통계를 통해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국적 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재적학생 수와 외국적 학생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수치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두 행정통계의 집계 대상과 기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부처마다 고유의 목적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통계의 일치를 위해 틀을 바꾸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다만,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국적 학생의 통계를 활용할 때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직업훈련, 재교육 등을 통해 국내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이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통해 정주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제공처로 지역의 대학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일부는 각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으로 학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유학(D-2) 자격을 제외하고는 외국국적 학생의 체류자격별 통계는 집계되지 않는다. 최근에 제안된 정책안들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있는 외국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이 파악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교육부·통계교육개발원. 2024.「2024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4.4.)」

통계정보

활용통계	①「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의 등록외국인 ☞ 등록외국인: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국내 체류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을 한 외국인 ②「교육기본통계」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위과정 학생 및 외국 유학생
작성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작성유형	보고통계
공표주기	①「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의 등록외국인: 분기별 ②「교육기본통계」: 1년

집필자 | 현채민·최서리·이창원 **문의** | 02-3788-8031 **발행인** | 우병렬 **발행처** |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 2024년 6월
주소 | 08100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el. 02-3788-8000 Fax. 02-3788-8099 www.mrtc.re.kr
인용 현채민·최서리·이창원. *2024. 외국국적 학생과 유학생(D-2) 규모 추이 (2014~2023).*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No. 2024-5.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서울.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본 이슈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과 국제이주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982-9852